

# 유아와 교사가 인식하는 유아교육기관 바깥놀이 공간의 의미 탐색

권선영<sup>1</sup>, 정지현<sup>1\*</sup>, 박선미<sup>2</sup>  
<sup>1</sup>경성대학교 유아교육과, <sup>2</sup>경남과학기술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Exploring the Meaning of Outdoor Play Spaces Perceived by Young Children and Early Childhood Teachers

Sun-Young Kwon<sup>1</sup>, Ji-Hyun Jung<sup>1\*</sup>, Sun-Mi Park<sup>2</sup>

<sup>1</sup>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yungsung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약** 본 논문은 유아교육기관의 실외공간인 바깥놀이터의 다양한 공간 구성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유아 간,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와 교사가 경험하게 되는 공간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유치원 3곳과 어린이집 1곳을 선정하여 유아들의 바깥놀이 활동 시간을 중심으로 한 비참여 관찰과 유아를 대상으로 한 비형식적 면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참여한 기관의 바깥놀이 공간 구성에 따라 유아들은 바깥놀이 공간을 자신의 심리를 재현 또는 표출하는 공간, 일상생활이 확장된 공간, 관계가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유아교사의 경우에는 기능적 공간, 제한된 공간, 분리된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아는 바깥놀이 공간에서 또래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 할 수 있는 기회와 확장된 놀이를 통해 유아 자신의 일상성을 재구성하는 경험을 한다는 것과, 아동중심의 발달에 적합한 공간구성은 기능적이고 확립화된 바깥놀이 공간 구성이 아닌 유아들의 일상적인 삶과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져야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researched the meaning of the outdoor play spaces used by young children, as perceived by them and their teachers. For this purpose, indirect observation, nonformal interviews during the activity of young children and in-depth interviews with teachers were conducted in 3 kindergartens and 1 day care center which operate various programs. As a result, outdoor play spaces were recognized as a psychological space, expanded space and sequential space for the relationships of young children. Meanwhile,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ived them as a functional space, expanded space and restricted space of the children's daily lives. It was recognized that outdoor play spaces provided the children with good and unstructured environments to reorganize their own daily pattern through expanded play and the chance to naturally form peer relationships. This suggests that the space configuration which is most suitable for child centered development is one that is formed within and by their daily lives, rather than the standardized configuration of outdoor play spaces.

**Keywords** : Early Childhood Institution, Early Childhood Teachers, Outdoor Play, Space, Young Children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모든 행위는 주어진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어떤 곳이 있어야 하며, 이는 의미와 행위 그리고 그 맥락이 융합된 것으로 공간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공간은 내부 또는 둘러싸인 한정된 공간으

\*Corresponding Author : Ji-Hyun Jung(Kyungsung Univ.)

Tel: +82-51-663-4331 email: jj144@ks.ac.kr

Received November 15, 2016

Accepted January 6, 2017

Revised (1st December 8, 2016, 2nd December 15, 2016)

Published January 31, 2017

로, 흔히 공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한정하는 것을 인지할 때에만 존재하며 경계에 따라 지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공간의 개념은 인지적 관점에서의 물리적으로 경계 지어 지는 부분만이 아닌 심리적, 사회적, 개념적인 요소에 의해 사람이 인지하고 한정하는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사람들의 삶이 펼쳐지고 생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은 실존적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실존적 측면에서의 공간은 사람, 시간, 행위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게 된다.

공간은 지각의 주체인 인간을 축으로 중심화 된다. 모든 공간의 중심은 행위의 장소, 즉 특정한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이며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하이데거는 공간은 그 존재를 장소로부터 받는 것이지, 소위 공간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인간의 행위로부터 공간의 의미를 부여받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1]. 이처럼 공간이 지닌 존재론적 의미를 볼 때, 공간은 그 속에 실존하는 인간의 행위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유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유아가 주거 공간인 가정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유아교육기관은 크게 실내·외 놀이 공간으로 구분되며, 이 중 실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바깥놀이 공간은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실내놀이와는 다른 매력을 제공하기도 한다. 바깥놀이 공간은 유아에게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실내에서와 같은 통제와 제한이 없어 결과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탐색하며, 실험해 볼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한다. 유아들도 성인의 통제와 감시로부터 벗어난 실외 영역을 규제가 적은 자신들만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2]. 따라서 바깥놀이 공간에서는 유아들이 자유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보장되며, 유아들 자신에게 의미 있고 무한한 발견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전통적이고 고정된 놀이시설이 유아의 놀이를 다양하게 이끌어 내지 못하는데 비해 자연적 공간의 실외환경이 더 많은 교육적 잠재성을 가졌다고 보고하고 있으며[3, 4], 실외 공간이 성인과 유아의 대화를 지지하고 인지적인 발달과 연관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5]. 또한 자연적 공간의 실외놀이에서 교사와 유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강력하

고 확장된 지식의 공동구성(co-construction)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6]. 자연적 공간의 실외놀이를 통해 유아들은 구조화되지 않은 느슨한 영역에서 자신의 놀이를 위해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변형하여 활용함으로써 유아의 주도성과 유능감을 나타내기도 한다[7].

이상의 선행연구들이 밝힌 바깥놀이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사들은 바깥놀이 공간을 실내놀이 공간과 같이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으며, 유아들의 발달 수준에 맞도록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영역을 배치한다. 즉 유아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서 흥미영역에 따라 공간을 구성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발달이라는 하나의 원리만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리는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발달론적 패러다임 속에서 이해하고 일반화시키는 경향성을 보인다. 즉 현재 유아교육기관 현장에서 교사들에 의해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공간구성의 원리는 특정한 발달론적 견해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루어진 유아교육기관의 실내 공간구성에 관한 존재론적 의미를 탐색한 연구들[8, 9]은 유아에게 있어 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기능적 장소의 의미를 넘어선 관계론적 의미를 지닌 공간, 다층적인 성격을 지닌 공간임을 밝히고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유아에게 있어 실내 교실 공간은 공간에 적합한 몸을 만들어주는 역할, 기억의 저장소 역할, 유아가 스스로 교실의 주체임을 확인시켜주는 역할, 유아들에게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한한 변형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였다[9]. 또한 유치원의 실내 공간 구성에 따라 유아들은 명확한 경계를 가진 공간과 느슨한 경계를 가진 공간, 성취지향적 공간과 대인관계 지향적 공간, 의식과 무의식적인 공간 등 다양한 이미지와 의미로 인식하였다[8].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실내 놀이공간뿐만 아니라 바깥놀이 공간 역시 유아간의 관계적인 측면과 실생활의 연장선으로도 이해 가능하며, 유아들이 그들의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장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유아교사가 바깥놀이 공간과 그 구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유아들이 경험하는 공간에서의 다양한 관계맺음에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유아교사가 유아교육기관의 공간을 기능적, 조직적으로 조성해 놓고 바라보면 그 자체

로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공간은 텅 비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행위, 관계, 상호작용의 산물이며, 그러한 공간은 행위, 관계, 상호작용에 인과적 영향을 끼친다. 공간은 서로 갈등하는 공간적 실천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며, 이러한 공간들은 추상적 공간에서 차별적인 공간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교사가 바깥놀이 공간을 구성할 때에는 기능적, 발달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절대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아 스스로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보며 유아들의 일상적인 삶에 다가가 유아가 재구성하는 의미를 이해하며 그 속에서 유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활동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또한 바깥놀이 공간의 질적 수준뿐만 아니라 바깥놀이공간의 유형에 따라라도 상이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서로 다른 기관운영 특성을 지닌 유아교육기관의 상이한 공간구성에 따라 유아들의 놀이 행동 이면에 작용하는 공간에 대한 이해와 그들이 부여하는 실생활 속 의미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단일한 맥락에 처한 유아교육기관의 공간에서의 경험만을 들여다본다면 공간과 유아간의 실존적 관계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 유아교육기관의 바깥놀이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유아들의 놀이 상황을 살펴보고, 놀이 속에 나타난 공간에 대한 유아와 교사의 이해를 통해 공간과 유아의 실생활 간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아들이 기관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바깥놀이공간은 유아들의 삶 속에서 기존의 발달론에 기초한 교육적 가치와 의미외에 어떠한 존재론적 의미로 나타나며, 바깥놀이에서의 사회적 규칙, 공간의 점유, 놀이 상대자, 집단의 형성 등 유아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유아들은 어떻게 공간에 대해 이해하고 지각하고 있는지를 현장관찰과 유아와 교사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1.2 연구방법

### 1.2.1 연구 참여기관 및 참여자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부산과 경남에 소재한 3곳의 유치원과 1곳의 어린이집을 선정하였다. 이들 기관들은 각기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바깥놀이

이 공간 또한 그들의 교육과정에 부합되게 물리적인 환경이 구성되어져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정된 기관들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있는 프로그램(NR 유치원), 몬테소리 프로그램(BD 유치원), 레지오 에밀리아 프로그램(JW유치원), 생태유아교육프로그램(BS 어린이집)을 실시하는 기관들로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아교육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각 기관의 바깥놀이 공간구성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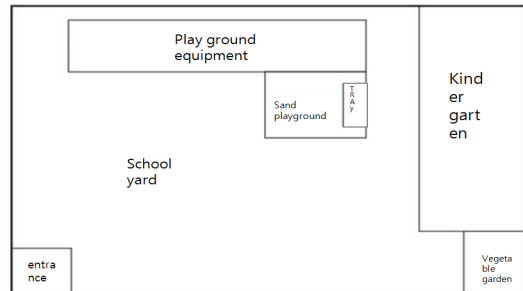


Fig. 1. NR Kindergart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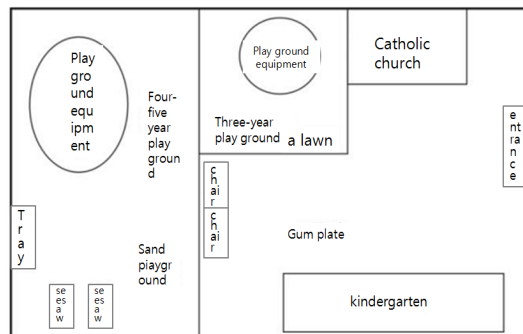


Fig. 2. BD Kindergart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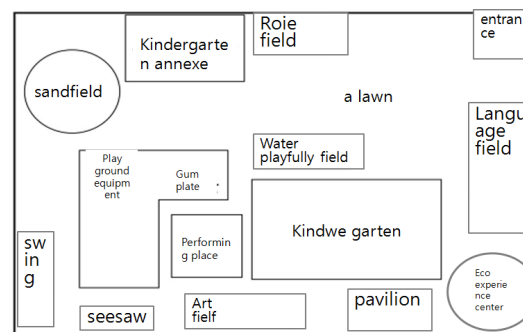


Fig. 3. JW Kindergart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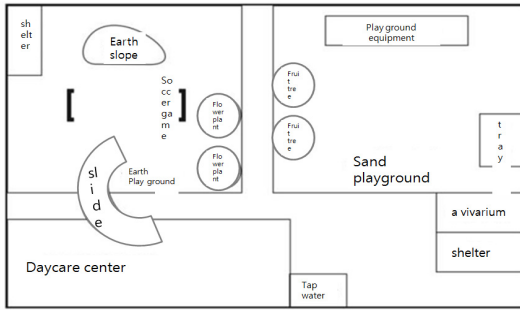


Fig. 4. BS Child-Care Center

연구 참여자는 만 3, 4, 5세 혼합연령으로 바깥놀이에 참여한 모든 유아들(NR유치원: 남아 6명, 여아 3명/ BD 유치원: 남아 4명, 여아 5명/ JW유치원: 남아 12명, 여아 11명/ BS어린이집: 남아 18명, 여아 15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담에 참여한 교사는 2년에서 6년 사이의 경력 (NR유치원 교사: 4년, BD유치원 교사 6년, JW유치원 교사: 2년, BS어린이집 교사: 4년)을 가진 담임교사 4인이다.

### 1.2.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유아교육기관 4곳 유아들의 바깥놀이 상황을 관찰하였고,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 참여 기관 및 교사들에게 연구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관찰 및 면담을 진행하였다. 관찰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유아들이 가장 많은 바깥놀이를 하는 점심 시간 이후에 촬영을 하였으며, 시간은 30-40분가량 동영상 촬영을 이루어졌으며, 동영상 촬영 중 유아들의 놀이에 대해 질문도 함께 병행하였다. 관찰 및 면담자료 이외에 연구자 일지, 사진 자료 등이 연구결과 해석의 보조 자료로 활용되었다.

### 1.2.3 자료분석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들은 연구 내용에 따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관별, 날짜별로 분류하고 반복적인 단서를 찾고 그것을 공간의 따른 놀이의 질적 차이를 이끄는 준거에 따라 분류하고 유목화 하는 과정을 가졌다. 참여관찰이 이루어진 비디오 촬영한 것을 전사한 자료를 통해 유아의 공간에 따른 놀이 형태에 따른 분석과 유아들의 의미 있는 관계 형성하는 과정 및 행동들을 발체하며 전사 자료와 관찰일지를 바탕으로 다양한

바깥놀이 공간 구성에 따른 유아들의 놀이를 의미에 따라 나누고 분석하는 작업을 하였다.

다음으로 1차 분석을 통해 생성된 분석단위들을 모아서 보다 포괄적인 상위범주로 발전시켰다. 범주가 완성된 후에는 코드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 사례를 재분류 하였다. 또한 다양한 바깥놀이 공간에 따른 유아들의 바깥놀이 활동에 대한 범주를 만들기 위하여 관찰기록과 면담 전사본을 읽고 예비 범주를 만들어 유목화 하였다.

위의 과정을 거쳐 분석되고 해석된 연구결과와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와 공동연구자 외에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맥락에 대해 잘 아는 유아교육 전문가 2인에게 자료원, 분석 및 해석이 신뢰할 만한지에 대한 질문과 점검을 받는 동료검토(peer debriefing) 과정을 거쳤다. 또한 전사한 관찰 자료의 일부를 교사에게 보여줌으로써 연구결과와 해석의 신빙성에 대한 정보제공자의 관점을 구하는 구성원 검토(member check) 과정을 통해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 2. 연구결과

### 2.1 심리적 공간 vs. 기능적 공간

연구에 참여한 기관들의 바깥놀이 공간은 유아들이 인식하는 심리적 공간과 교사가 인식하는 기능적인 공간으로 드러났다. 유아들은 주어진 바깥놀이 공간의 경계를 벗어나거나 공간이 보유한 특성을 유아의 내적 심상으로 끌어들이므로써 형식이나 틀에 매이지 않고 유아들간의 자유로운 놀이를 하거나 유아 스스로 놀이를 만들기도 하고 변형하기도 한다.

[종일반 유아들이 BD 유치원 뒤편에 있는 수녀원의 뒤편 넓은 잔디밭에서 놀고 있다.]

연구자 : 지금 뭐하니?

유 아 : 미끄럼틀 타고.

연구자 : 여기서 미끄럼 타는 거야?

유 아: 네.

연구자 : 여기가 어디야? 이건 미끄럼틀이 아니고 바위 같은데?

유 아 : 바위에서 미끄럼 타고.

연구자 : 바위에서 미끄럼 타도 재미있어?

유 아 : ㅎㅎ..

(11월 7일, BD유치원 만 5세 유아면담)

BD유치원 유아에게는 연령별로 고정된 놀이시설, 모래놀이장 등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바깥놀이 공간이 주어져 있다. 하지만 유아들에게는 바깥놀이터라고 명명된 공식적 놀이공간의 미끄럼틀보다 유치원 뒤편에 위치한 잔디밭 바위의 경사면이 실제보다 더 재미있는 놀이기구로 변형되어 사용되었다. 유아들은 심리적으로 자신만의 특별한 공간을 만들 때에 스스로가 주체 기관(agency)이 되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 만들어지고 고안된 공간 그 이상으로 가치 있게 생각하게 된다[10].

구조적인 바깥놀이 공간(모래 놀이터, 복합 놀이기구)에서의 유아들의 놀이는 한정적인 반면, 비구조적인 바깥놀이공간이 된 잔디밭이나 놀이 시설이 없이 비어있는 공간에서의 유아들의 놀이는 규칙 보다는 유아들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 가며 유아간의 관계 위주의 놀이를 하는 모습이 주로 관찰되었다. 유아들은 주변에 활용 가능한 것들은 모두 사용하여 유아 자신이 원하는 놀잇감으로 변형 시키고 구조적인 실외공간에서 할 수 없었던 놀이(뛰어 다니기, 소리 지르기, 경찰놀이 등)를 하였다. 유아들은 이러한 비구조적인 공간 속에서 심리적인 개방감을 전제로 다양한 경험을 재현해 내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바깥놀이공간에 마련되어 있는 작은 공연장에서 유아들은 자신들의 놀이를 공연하듯이 공연장을 활용하고 관객에 대한 신경은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한 유아는 무대 위에서 훌라후프를 돌리기도 하며 다른 유아에게 자신이 하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고, 또 다른 유아는 줄넘기를 다양한 형태의 줄넘기를 설명하기도 하고 유아 스스로 규칙이나 순서를 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스스로 공연자가 되기도 하고 관객이 되기도 하면서 유아들에게 공연장은 공연장으로서의 모습 보다는 유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비구조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12월 16일, JW유치원, 연구자 일지)

JW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건물 옆에 소규모의 공연무대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유아들은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이 공간을 나름대로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동작을 시연하는 장소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처럼 유아들에게 있어 ‘비워진’ 바깥놀이공간은 구체적으로 지각되지 않고 의식의 영역에서 파악되지 않는 잠재성으로서 다양한 관계들과 접속하면서 각자가 지닌 잠재적인 능력들을 발현, 증대시키는[11] 의미를 가진다.

반면, 교사들은 같은 장소의 바깥놀이공간을 유아들

과는 사뭇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구조적으로 이루어진 실외공간속에서 기능적으로 유아간의 관계 및 놀이가 증대될 수 있으며 상호작용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내 교실환경 구성과 마찬가지로 영역별로 다양한 실의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유아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더 확장시킬 수 있고 친구와의 상호작용도 더 활발해 지는 것 아닐까요?

(12월 16일, JW 유치원 교사면담)

아무래도 몬테소리에서는 준비된 환경 속에서의 구조와 질서가 중요하지요. 사용한 기구나 도구를 스스로 정리정돈하면서 질서감을 형성한다고 보거든요. 바깥놀이터에서도 차례를 지키거나 줄서기, 위험한 행동하지 않기, 자기가 쓴 놀잇감은 제자리에 두기 같은 규칙은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나 안전한 놀이를 위해서 중요하니까 아이들이 그 정도는 지키도록 하지요. (중략) 아이들이 바깥놀이를 갈 때 아이들과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놀다 보니까 부딪치는 일도 많고 아이들이 상호작용 하면서 다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래서 나가기 전에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질서를 지키는 것 서로 양보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 많이 하고요. 모래놀이터에서 어떤 약속을 지켜야 하는지, 놀이기구를 다치지 않고 이용하려면 어떤 약속을 지켜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주시킴으로써.

(11월 20일, BD유치원 교사면담)

연령 및 영역에 따라 바깥놀이터가 구조화되어 있는 BD유치원과 JW유치원의 경우 교사들이 인식하는 바깥놀이공간은 유아들이 자유로운 놀이를 하는 공간이기 보다는 기능적으로 나누어진 공간을 활용하고 주어진 시간과 규칙을 지켜야 하는 공간이었다. 유아들은 공간이 지닌 본래의 목적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 경계를 허물며 자기 내면의 상상과 욕구를 표출해 내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교사는 바깥놀이공간을 일과 중에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과정의 실행의 장으로 인식하고 유아의 심리가 재현되어지는 공간의 의미 보다는 안전이라는 틀로 제한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 2.2 일상생활이 확장된 공간 vs. 제한된 공간

공간은 물리적 공간(자연) 및 정신적 공간(공간에 관한 형식적 추상화), 그리고 사회적 공간(인간 행동과 갈등 그리고 감각적 현상의 공간)의 조화를 포함하며[12],

물리적인 공간에 포함되는 자연은 유아들의 체험을 통해 유아자신의 삶의 공간, 즉 사회적인 공간을 만들어낸다. 유아들이 만들어낸 사회적인 공간에 따라 유아간의 관계 및 놀이의 형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때로는 그것이 유아들의 일상생활과 분리되기도 하지만 유아들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놀이를 만들기도 한다.

연구자: 애들이 지금 뭐하는 거야?

유 아: (흙을 굴리며) 저는요 주먹밥하고요, 피자 만들어요.

연구자: 옆에 나뭇잎은 뭐 할 거야?

유 아: 피자 안에 장식하구요. 찢어서 주먹밥 양념할 거예요.

(11월 13일, BS어린이집 만 4세 유아면담)

제가 아이들 마다 실외놀이 형태라든지 상호작용은 좀 다르게 나타나는 데요. 주로 모래놀이를 하면 물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하기도 하고 몇몇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같이 하게 되고 확장놀이를 하게 되는데 거미집 놀이를 하거나 다리를 만든다거나..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놀이로 확장되어가는 것 같고...

(11월 27일, BS어린이집 교사면담)

자연친화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BS어린이집의 실외 공간 구성은 모래놀이와 흙놀이를 함께 또는 나누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전통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유아들은 이러한 실외공간 안에서 실내에서와 같은 통제와 제한이 없어 결과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탐색하며, 실험해 볼 수 있는 자유를 제공받는다. 유아들은 성인의 통제와 감시의 눈초리로부터 벗어난 실외 공간을 규제가 적은 자신들의 공간이라고 지각한다[2]는 점을 감안했을 때, 통제와 제한이 최소화된 바깥놀이 공간 안에서 유아들이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 놀이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바깥놀이공간은 유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이 확장되는 공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영역 간 경계가 명확한 BD유치원의 바깥놀이공간에서 유아들은 바깥놀이 공간 활동을 실내 활동의 연장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또 다른 공간, 제한적인 공간으로 인식한다. 정형화된 물리적인 공간은 유아들의 일상생활과 연계될 수 없으며, 사회적 일상생활과도 분리시킨다.

연구자: 어떤 놀이가 제일 재미있어?

유 아: 친구랑 같이 노는 거요.

연구자: 그럼 교실에서는 친구랑 못 놀아?

유 아: 네.

연구자: 그래서 바깥놀이 할 때 친구랑 제일 신나게 노는 거야?

유 아: 네.

연구자: 근데 왜 시소 먼저 탔어? 놀이기구 중에 시소 타는 걸 제일 좋아해?

유 아: 응... 형님들 타는 미끄럼 빨리 타고 싶어요.

우리는 원래 어려가지고요 선생님이 타지 말라고 했어요. (11월 7일, BD유치원 만 4세 유아면담)

BD 유치원의 교사들은 실내 놀이영역과 마찬가지로 바깥놀이 영역 또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교사는 공간을 나눔으로써 의도하는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유아들의 놀이를 일부 제한하게 되었으며, 계획되었던 바깥놀이를 지향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바깥놀이에서 저희들이 계획안에 적은 것이라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놀이하는 것이라 좀 맞게 이루어지는 것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계획안에서는 구성 같은 것도 다 생각을 하고 바깥놀이터에 나가는데 아무래도 바깥놀이터는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먼저 먹은 친구들이 먼저 바깥놀이 활동이 이루어지니까 참여할 수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 인원이 나가다 보니까 활동적인 부분을 잘 못 할 때가 있어요.

(11월 20일, BD유치원 교사면담)

### 2.3 관계의 연속적 공간 vs. 분리된 공간

유아는 확정된 특징을 갖고 미리 고착된 존재가 아니라 세계와의 만남에서 생기는 관계의 주도자이며[13]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유아에게 관계형성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JW유치원의 구조화된 바깥놀이 공간 내에서조차 유아들은 그 공간을 일상성의 실천이 가능한 공간으로 재해석하며 유아간의 관계를 연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실외 공간으로 이동한 유아들은 처음에는 놀이터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 위주의 개별적인 활동을 하다가 어느새 유아들은 함께할 수 있는 역할놀이 위주의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중략) 여자 아이는 미장원 놀이를 하며 다른 유아에게 손님을 하라고 권하기도 하며 다음번에는 자신이 손님을 하겠다 하며 유아간의 관계를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었다. 미용사 역할을 맡은 유아는 머리를 자르는 흉내를 내면서 “다 됐어요. 이리로 오세요.”하며 물놀이 영역으로 손님역을 맡은 유아

를 안내한다. 물놀이 영역의 수도꼭지 앞에 친구를 앉히고 수도꼭지를 열어 머리를 감겨주는 시늉을 한다. 그 모습을 본 물놀이 영역에 있던 다른 유아는 “나도 머리감을래.”라고 하며 옆에 앉는다. 이처럼 유아들은 서로 다른 아이들의 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하는 놀이와 연계하면서 실외공간을 자신들만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2월 16일, JW유치원, 연구자 일지)

이처럼 유아들은 구획 지어진 공간의 빗장을 풀고 이를 자유로이 활용해 나가고 있었다. 여기서 유아들에게 야기되는 경험은 물리적인 공간속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이러한 상징은 정형화된 놀이의 형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추상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유아간의 관계를 형성하게 됨에 따라 함께 공유하는 놀이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이미 잘 나누어진 공간은 유아들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관계의 연속적 장이 된다.

정체감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Thompson, 1993), 이러한 관계를 통해 유아들은 끊임 없이 성장해 간다. 상대적으로 공간구성이 개방적인 BS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바깥놀이공간을 통해 유아들이 또래 간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는 양상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바깥놀이 공간을 유아 간 상호작용 및 관계적인 면을 고려하여 이해하는 BS어린이집 교사의 다음과 같은 태도는 유아 간 상호작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었다.

바깥놀이터는 아이들이 놀이를 만날 수 있는 장이고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장이고.. 그래서 바깥놀이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바깥놀이를 나가면 자연스럽게 여러 연령과 섞이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합이 이루어지거든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이 자기 반 아이들끼리만 노는 것이 아니라 섞여서 놀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함께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관계를 가지는 것을 배워 나가는 것 같아요.

(11월 27일, BS어린이집 교사면담)

반면 NR유치원의 바깥놀이 공간은 여느 유아교육기관이 그렇듯 전형적으로 구조화된 공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유아들은 이 공간을 친구와의 관계를 촉진할 수 공간이 아닌 또 다른 분리된 공간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연구자 : 뭐하고 놀아? 막 뛰어놀고 그러지는 않니?  
친구들과 잡기놀이는 안 하니?

유 아 : 네.

연구자 : 왜 안 해?

유 아 : 선생님이 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연구자 : 왜 안 된다고 하셨을까?

유 아 : 교무실 때문에(교무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시끄럽다고..

(11월 19일, NR유치원 만 5세 유아면담)

대개 유아들은 실내보다는 실외라는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제약 없이 자신의 느낌을 탐색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주변 환경에 대한 끊임없는 유아들의 흥미와 호기심, 왕성한 활동력은 전 영역에 걸친 발달의 동력이 되며 이러한 흥미와 활동성의 발현은 공간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실에서와 마찬가지로 ‘뛰면 안 되는’ 규칙을 부여한 순간 바깥놀이 공간은 유아의 사회적, 일상생활과 분리된, 압목적 통제가 존재하는 공간이 된다.

교 사 : 저는 아이들이 더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외놀이터가 교실처럼 영역이 좀 더 구분되어졌으면 하고요.

연구자 : 어떻게 영역이 구분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교 사 : 우리 유치원은 모래 놀이하는 공간이 광범위해서.. 놀이기구 영역이나 물 영역이 구분되어 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11월 19일, NR유치원 교사면담)

NR 유치원 교사는 유아들의 자유로운 개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바깥놀이 공간이 실내공간처럼 구분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나타내었다. 교사는 바깥놀이공간이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되어진 풍부한 환경이 될수록 유아의 놀이 역시 더 풍부해질 것이므로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3.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맥락을 지닌 유아교육기관의 바깥놀이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유아들 간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보고, 바깥놀이 공간에 대한 유아와 교사의 이해를 통해 바깥놀이 공간의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는 바깥놀이공간을 자신들의 심리가 재현 혹은 표출되는 공간으로 인식한 반면, 교사들은 기능적으로 잘 나누어진 공간으로 인식하는 양상을 보였다. 유아들은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속에서도 바깥놀이공간을 융통성 있게 수용하여 그 속에서 놀이를 변형시키며 다양한 놀이를 만들어 나갔다. 교사들에게 있어 바깥놀이공간은 교실공간과 마찬가지로 유아들의 특정 영역에서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공간이지만, 유아들에게는 새로운 경험과 발견의 공간이자 원래 바깥놀이 공간이 지닌 기능적 의미를 넘어서서 새롭게 확장된 공간이었다. 즉, 유아는 바깥놀이공간을 자신들이 만들어 가는 공간, 주변의 모든 것들이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심리적 상황, 즉 개인적 관심과 흥미, 욕구를 재현하고 표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며, 교사는 정형화된 영역의 틀 안에서 유아의 발달을 촉진시키며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능적인 공간으로 다르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아들의 성장, 발달을 촉진시키는 바깥놀이의 기능자체에만 주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내 환경에 대한 계획과 실행만큼 바깥놀이 환경의 계획과 실행에는 힘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14]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일반적으로 유아교육기관의 바깥놀이 환경은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촉진시키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도록 제안되고 있다. 물리적 환경으로 개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기관의 공간은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다양한 교재, 교구 및 게시물과 시설, 설비와 같은 내용물을 기능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개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표면적 특성 이상의 유아 생활세계의 의미를 찾기는 매우 힘들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바깥놀이터를 자신의 심리가 그대로 포개지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유아들의 관점에서는 교사들이 인식하는 제도화된 공간의 의미가 기능적으로 이해되지도 않을 수 있다. 교사들은 유아의 놀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동시에 유아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바깥놀이 공간과 활동을 제공해주고자 공간 구성을 하지만, 정작 유아들의 실제 심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기능적인 측면에 치우쳐 구성된 바깥놀이 공간은 실천적 공간이

아닌 추상적인 공간의 기능을 가지게 되어 유아들의 생활세계와 유리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교사들은 바깥놀이 공간을 제한적 공간으로 인식한 반면 유아들은 일상생활이 확장된 공간, 즉 일상적 경험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공간에 중첩되는 경험적 공간은 생각이라기보다는 느낌, 체험적이며 그곳(공간)이상의 것이다. 유아들이 느끼는 공간은 즉각적이며, 시간을 함의한다. 이렇듯 유아들의 바깥놀이 공간에서의 놀이는 유동적, 역동적으로 유아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다양한 공간에 따라 표현되기도 하고 놀이의 모습 또한 다양하게 표현되어 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유아들은 실외라는 공간에서 구체적인 삶의 상황을 드러내었고 일상생활이 확장된 공간은 그들 자신이 인지한 공간으로, 특히 그들의 일상적 현실과 긴밀한 유사성을 가진다. 즉 확장된 공간으로서의 바깥놀이터에서는 유아들의 일상성이 재현 또는 재구성되며, 공간적·물질적 형식을 통해 현실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바깥놀이는 유아가 자신의 일상생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됨을 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유아들은 자신들의 공간에서 경험한 것을 체험하고 기억하며, 그 공간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의 소통[15]을 확인할 수 있다.

Bollnow[16]는 인간에 의해서 경험되는 구체적인 공간, 바로 그곳이 실제로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해 볼 때, 교사들은 놀이행위가 특정한 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간과하고 바깥놀이공간을 단순히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놀이의 연장선으로 생각하여 규칙이라는 명목 하에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공간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일차적인 목적을 가지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교육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교육 매체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유아들은 경험을 통해 성장하며 이러한 경험들이 유아들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기에 기존의 발달에 적합한 바깥놀이 공간, 정형화되고 획일화된 바깥놀이 공간 구성이 아닌 유아들의 일상적인 삶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성 속에서 공간구성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유아들의 삶은 물리화환경이라는 매트릭스와 유아 자신의 생활세계간의 경계를 구분 짓고 넘나드는 중층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의 차원과는 별도로 공간에 대한 유아들의 존재론적 의미를 공간과 유아 간 상호작용과 교사들의 인식 속에서 반성적으로 성찰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교사들은 바깥놀이 공간이 유아의 자유로운 놀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분리된 공간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유아들은 분리된 공간구성의 경계를 해체하고 관계의 연속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유아들의 인식은 기관철학에 따른 공간운영 방식과 교사의 태도에 따라 지지되기도, 제한되기도 했는데 여러 영역들로 명확하게 분리된 바깥놀이터에서는 유아들의 자유로운 공간이 아닌 정형화된 공간으로 기능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공간에서는 유아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 보다는 개별적인 활동에 중점을 두는 교사의 관점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 속에서 유아들은 또래보다는 교사와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며 공간을 자신들의 일상성이나 유아간의 관계보다 집단성이 우선 시되는 곳으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획일적인 바깥놀이공간은 유아들의 놀이 및 유아간의 관계를 다양하게 이끌어내는데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바깥놀이 공간에서 유아들 간의 진정한 자유로운 놀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아들이 경험하는 일상성이 연속적으로 재구성되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유아 대 유아, 유아 대 교사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은 자신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공간의 경계 내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즉 공간은 사회적 존재의 활동이나 사용, 필요 등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것이 공간의 핵심적인 문제일 것이다. 사회적 공간은 사회적 산물이며, 현실에서의 사회적 공간은 집단적인 동시에 개별적인 주체들의 행위들을 통합시키며, 무한한 공간의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유아교육기관의 바깥놀이공간에서 나타나는 유아들의 행위는 사회적이며, 이들의 사회적 행위(놀이)는 그 공간에 대한 유아들의 이해와 관계성 위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유아들에게 제공 되어지는 이상적인 공간, 현실적인 공간은 유아들의 비형식적인 담론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는 장소로서 유아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한 목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현재 바깥놀이 공간이 유아의 사회적 일상생활과 공간을 분리시키며 발달적인 측면만을 강조해 획일

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은지, 발달에 적합한 원리라는 이유와 보편성을 강조하여 유아들의 자율성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재고해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K. S. Lee., *Existence and Time*, Seoul: Magpie, 2006.
- [2] Stephenson, A., "Physical Risk-taking: Dangerous or Endangered?", *Early Years*, vol. 12, no.1, pp. 35-43, 2003.  
DOI: <https://doi.org/10.1080/0957514032000045573>
- [3] S. E. Lee., "A Qualitative Study on the Uses of Physical Environments and Outdoor Play at Educational Agencies for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 9, no. 3, pp. 153-170, 2010.
- [4] Maynard, T., "Forest Schools in Great Britain: an Initial Exploration", *Contemporary Issues in Early Childhood*, vol. 8, no. 4, pp. 320-331, 2007.  
DOI: <https://doi.org/10.2304/ciec.2007.8.4.320>
- [5] Waters, J., & Maynard, T., "What's So Interesting Outside? A Study of Child-initiated Interaction with Teachers in the Natural Outdoor Environment", *Europ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Journal*, vol.18, no. 4, pp. 473-483, 2010.  
DOI: <https://doi.org/10.1080/1350293X.2010.525939>
- [6] Waller, T., "Don't Come Too Close To My Octopus Tree": Recording and Evaluating Young Children's Perspectives on Outdoor Learning", *Children, Youth, and Environments*, vol. 16, no. 2, pp. 1546-2250, 2006.
- [7] K. O. Na, & K. H. Kim, "An Action Research for Teacher-children Co-construction in Outdoor Play in Natural Space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1, no. 2, pp. 43-68, 2014.
- [8] S. Y. Kweon, J. H. Jung, & K. E. Kim, "The Discourse and Meaning of Space Construction in Kindergarten, Focused on Social Interaction Among Young Children in Free-choice Activities",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vol. 14, no. 2., pp. 395-421, 2013.
- [9] B. Y. Lim, H. R. Yang, & J. Y. Song, "The Meaning of Classroom Space as a Place Where Children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7, no. 4, pp. 249-272, 2012.
- [10] Tovey, H., *Playing Outdoors: Spaces and Places, Risk and Challenge*, Maidenhead: Open University Press, 2007.
- [11] Y. S. Kwak, *Qualitative Research-Philosophy, Arts, and Education*, Kyoungki: Kyoyookbook, 2011.
- [12] Lefebvre, H., *The Production of Space*, Seoul: Ecolibre, 2011.
- [13] Y. S. Son, *Young Children Live with Whole Body*, Kyoungki: Gongdongche, 2006.

- [14]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Nuri Curriculum*, Seoul: MEST, 2013.
- [15] Y. S. Kim, "Socio-cultural Reconstruction of Space Text and Space Storytelling - Focusing on the Case Study of Gumdan and Chuncheon-", *Human Contents*, vol. 11, pp. 35-59, 2011.
- [16] Bollnow, O. F., *Pädagogische Anthropologie*, Seoul: Munumsa, 1999.

**권 선 영(Sun-Young Kwon)**

[정회원]



- 2010년 8월 :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교육학석사)
- 2013년 2월 : 경성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관심분야>  
유아교육

**정 지 현(Ji-Hyun Jung)**

[정회원]



- 1998년 5월 :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교육학석사)
- 2004년 5월 :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교육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경성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

**박 선 미(Sun-Mi Park)**

[정회원]



- 2006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0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1년 3월 ~ 2015년 8월 : 동양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2015년 9월 ~ 현재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